미가 맥잡기 미: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닥치는 이유

미가 1,2장

약 6개월 전부터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의 대언서들 강해

지난 20시간,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맥잡기

이제는 나머지 대언자들 연구, 스바냐, 미가, 하박국, 에스더 등

오늘부터 미가 맥잡기를 하려고 한다.

미가 개요

기록자: 미가, 기록 시기: 주전 700년경, 성격: 대언, 기간: 약 40년

수신자: 남 왕국 유다의 백성과 지도자들, 이름: 미가는 '여호와와 같은 분이 누구신가?'를 뜻한다. 대언자 미가는 자기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심을 보여 준 사역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를 예고한 메시아의 전령이었다.

주제: 유다의 죄, 구원자이자 왕이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목적: 하나님께서 죄와 범법으로 죽은 자들을 찾아와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 것

내용: 대언자 미가 시대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은 군대를 이끌고 유다의 북부와 서부로 진격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으나 함락하지는 못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이집트와 예루살렘을 제외한 근동의 대다수 국가들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아 매년 공물을 바치게 했다. 이때는 특히 농민들과 지방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안과 시련의 시대였는데 그 이유는 군인들이 작은 마을들을 침략하여 거주민들을 노예로 삼는 횡포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왕국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관원들과 부자들 그리고 이를 묵인하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이 큰 도시들의 튼튼한 요새에서 안정을 누리며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였다. 그러므로 농민들은 아시리아 사람들과 자기 나라의 착취자들로부터 이중의 고통을 받았다. 미가는 이렇게 억압받는 백성들의 사정을 변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다.

미가서는 7장, 105절, 3,152개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7장(이스라엘의 고백과 중재)

핵심 단어: 들으라, 핵심 문구: '주께서 자신의 백성과 논쟁하시며'(6:2)

미가서의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치리자(5:2), 영적 교훈: 눈을 들어 보고 살라.

미가는 세 개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들으라(1:2; 3:1; 6:1)

1. 경고의 메시지(1:2-2:13): 사마리아, 유다의 심판, 이유: 탐욕과 거짓 대언자
2. 약속의 메시지(3:1-5:15): 지도자들의 죄(3), 민족의 미래(4), 메시아의 오심(5;1-5), 원수의 패배(5:6-15)
3. 도전의 메시지(6:1-7:20): 주를 신뢰하라.

미가의 도시 가드 근처의 모레셋: 예루살렘 남서쪽 40킬로미터

이사야와 호세아(이스라엘)동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 시대의 부흥 주도(렘26:18)

유다의 사회경제적 변화: 농촌에서 도시로, 모세의 율법 무시, 가난한 자 무시, 미가의 경고와 책망

미가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다의 멸망을 내다봄 그리고 유다의 철처한 회개를 촉구함

심판이 다가온다(1-2장)

1. 하나님의 진노가 닥친다(1:1-15)

미가는 다짜고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한다.

a. 법정이 열림(2:), 법정 하나님이 재판장, 유다와 사마리아 피고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함(2). 주님은 온 땅의 주(4:2-3)

b. 재판장이 오심(3-4), 목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두려우신 하나님

c. 피고 호출(5): 유다와 이스라엘(수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아시리아 이스라엘 멸망(BC 721), 이를 보고 유다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음, 히스기야 시대에 아시리아의 침공(사36-37)

유다와 이스라엘: 우상숭배 죄악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부터 우상 숭배, 다른 신 숭배

희생물을 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다(사1).

2. 애가: 도시들이 폐허가 될 것이다(6-16).

미가는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사람처럼 반응한다(8). 백성의 죄로 인한 마음의 부담

a. 사마리아의 몰락, 언덕에 위치하여 비옥한 이스르엘 골짜기를 바라봄

이사야는 사마리아를 교만의 왕관(사28:1),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할 것 예언(2-4). 아시리아에 의해서, 사마리아의 우상들 꼼짝 못함

사마리아 백성의 타락과 부패, 하나님의 말씀 대적, 도시와 백성 멸망, 사마리아 신전 훼파: 거짓 신들의 소재지, 한마디로 영적 간음, 구약성경 우상숭배는 간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도 훼파: 지도자들의 타락, 역시 이방 신들 숭배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 시내 산 언약은 결혼 언약과 같다.

사마리아의 멸망: 살만에셀, 사르곤 2세의 공격, 주전 721년 함락됨, 사마리아 백성 출현

유다의 몰락(9-16): 이스라엘의 질병이 유다로 확산됨(9), 미가 대언자의 통곡(8)

BC 711년경, 아시리아의 산헤립 침공 유다 남부 지방(10-16; 왕하18:7)), 40개 도시 정복,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함

가드, 아브라의 집, 사빌, 사아난, 마롯, 라기스, 마레사 등

이 도시들의 비극: 점령당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

하나님의 고소: 백성의 죄악(미2:1-11)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

하나님의 선민은 특권이다. 특권에는 책임이 따른다.

가장 큰 죄: 탐욕과 거짓 대언자

1. 탐욕(1-5)

모세의 율법: 땅은 지파에게, 가적에게 머물러야 한다.

땅은 주니의 것(레2; 5:2 등).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빌려 주심

희년 제도(레25), 50년 뒤 원래 주인에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영원토록 압제하지 못하게

미가 시대의 큰손들: 가난한 자들 약탈, 큰돈을 벎, 밤낮으로 궁리하여 가난한 자들 약탈하려 함

결국 이런 부자들이 법원 장악, 약한 자들 억압

악하게 땅을 빼앗아가면서도 죄라고 느끼지 않음, 악법을 만듦

주님의 경고: 약자를 보호하라(출23:11; 레25;25; 시25;25 등)

이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음

이 죄의 이름: 물질만능주의, 탐욕주의자들, 가질 수로고 더 가지려 함

그러나 결국 탐욕스러운 죄인들은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3-5).

2. 거짓 대언자들(6-11)

구약 시대 이스라엘, 유다 멸망의 가장 큰 원인: 거짓 대언자

예레미야, 아모스 등 공격

죄나 회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지 않는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만 드리면 만사형통, 주일 성수, 십일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는 약속과 의무가 함께 들어 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의미 없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7-13). 올바른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지를 듣지 않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 그들의 의무: 바르게 예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 낼 것이다.

신약 시대에도, 벧후 2장을 보라. 오순절 은사주의, 신사도, 번영복음, 관상 기도 등

하나님의 위로(12-13

대언자는 경고뿐만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도 주어야 한다. 특별히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기서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는 장래의 영광: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

그때까지는 남은 자들과 함께하신다.

구약의 남은 자 사상

사실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만 돌아옴

말라기 시대 이후로 남은 자들

예수님 당시에도 남은 자들

그 이후 교회 시대에도 남은 자들

오늘의 교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특권과 의무가 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친다.

현시대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 회개하고 돌아서야 한다.

미가 맥잡기 ㅁㄹ: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미가 3-5장

지난주부터 미가, 이사야와 같은 시대 주전700년경, 주전 721년 이스라엘 패망, 어렵고 힘든 시기
유다 히스기야 시대, 부자들의 탐욕, 착취, 약자들의 고통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닥치는 이유, 거짓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 무시
오늘 미가서의 핵심: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신다.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본다.
3장: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책망, 4-5장: 메시아 왕국의 도래(4-5)
미가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말함으로써 지도자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대함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음

지도자들 책망(3)

들으라. 들을지어다(1:2; 3:1; 6:1). 중요한 메시지이다. 듣기의 중요성(마11:15; 13:9..계2:7-3:22), 신약에만 16번
히3:7-9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1. 미가는 일단 사회 지도자들을 책망한다(1-4).
   이들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게 하고 자기들도 착취한다.
   지도자의 특성: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그런데 이들은 정반대로 한다.
   이상적인 지도자들(출18:21), 온 백성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탐욕을 미워하는 자들
   아모스의 경고(암5:15),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판단의 공의를 굳게 세우라.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사회는 멸망한다.
   요즘 LH 사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이상한 정의와 공정
   이런 지도자들: 양들을 공격하는 사나운 짐승들 같다.
2. 거짓 대언자들 책망(5-8)
   이들의 특징: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외침(렘6:13-14; 8:10-11)
   결국 선량한 시민들을 심판 자리로 데려간다.
   그러므로 영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엘 오스틴, 릭 워렌, 로버트 슐러, 신비주의 관상기도 빈야드 운동, 신사도주의 목사들
   거짓 목사들의 특징: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과 말만 하는 자들
   참 목사: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함
3. 그 땅의 모든 지도자들(9-12): 치리자, 제사장, 대언자들의 여러 가지 죄악
   이런 죄악의 원인: 주님의 성품을 모른다. 그분의 언약을 모른다.
   성전이 있다고 문제 해결 아니다. 속중심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모른다. 부인하다.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백성과 치리자들의 죄악의 결과: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미4:10).
   렘5:30-31

이스라엘의 소망(4:1-5:5)

미가는 예루살렘의 패망에서 시간을 뛰어넘어 마지막 시대로 간다.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성전
원래 마지막 날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되어(히1:1) 그분의 재림까지 이어진다. 메시아 왕국의 선립

1. 약속된 왕국(4;1-8)
   미가 당시 북왕국과 남왕국의 형편은 볼품이 없다. 아시리아의 출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남왕국

유다 침공, 예루살렘 거의 함락 위기

전망이 좋지 않다. 이때 미가는 위를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 두 왕국은 하나가 된다.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중심이 된다. 성전이 재건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부활된다(겔40-48).

미4 앞부분은 이사야서 2장 2-4절과 같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침략하지 않고 몰려들어온다(4;1).

이 땅에 참된 평화, 메시아의 통치, 전쟁 무기 소멸(4:3)

모든 유대인들의 물리적 평안(4:4)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 행복(4;5)

이 절은 메시아 시대를 말하지 않는다. 이교도들과 유대인들의 차이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각처에서 데려오신다(6-7).

메시아의 통치, 예루살렘은 수도

2. 약속된 구출(9-10)

예루살렘의 이름 시온의 딸, 성경의 도시들은 대개 다 여성형, 시온의 딸은 하나님의 보호를 뜻함

도시에 산통이 닥침, 즉 바빌론의 침공, 도시 멸망, 바빌론 70년 포로 생활

그러나 70년 뒤 바빌론에서 구출받음

3. 약속된 승리(11-13)

다시 마지막 때, 이교도들의 침입(슥12:1-9; 14:1-11), 아마겟돈 전쟁, 이교도들 승리 확신

그러나 하나님은 미약한 유대인들 사용하셔서 이들을 정복하심

4. 약속된 왕국(5:1-5)

바빌론의 침공(5:1), 시드기야의 패배, 도망함,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 죽임, 그의 두 눈을 뽑음

5:2의 그러나 시작, 1절과 상반되는 구절

2-5는 메시아

메시아의 출생지, 베들레헴(마2;1-12),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 '빵 집'

룻과 나오미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옴, 거기에 보아스, 룻은 오벳, 이새, 다윗

메시아 약속: 다윗을 통해서(삼하7)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옴을 알고 있다(요7:42).

메시아의 특성: 그의 나아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5:2)

그의 근본, 근원, 뿌리, 기원 등은 다 틀린 말이다. 그분은 기원이 없으시다.

그분의 초림과 재림 사이, 그분의 백성은 넘겨진다(5:3).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돌아온다.

미가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는다. 그 의미를 모른다. 알려 하지 않는다.

승리: 이스라엘 민족의 정화(5:5-15)

미가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패망(5-6),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축복(7-9), 그들의 정화(10-15)데 대해 말한다.

1. 아시리아 패배(5-6): 여기의 아시리아 사람은 그 당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재림의 때, 적그리스도의 세력

일곱 목자, 여덟 지도자, 많은 목자 많은 지도자

2. 남은 자들이 복을 받음(7-9), 스가랴서 13장 그 땅의 삼분의 일

3. 민족의 정화(10-15)

미가 이전, 당시, 이후 수많은 대언자들, 백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때 백성의 회개, 순종한다(슥12:10-13:1)

모든 우상 제거(슥13:2)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롬11:1).
이스라엘 대체 신학 죄악이다.
재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벧후3;10-11).
우리도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에 있다. 많은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수많은 거짓 대언자들
성도들이 영을 분별하고 깨어나야 한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다.

미가 맥잡기 #3: 백성의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된다

미가 6-7장

지난주부터 미가, 이사야와 같은 시대 주전700년경, 주전 721년 이스라엘 패망, 어렵고 힘든 시기
유다 히스기야 시대, 부자들의 탐욕, 착취, 약자들의 고통

미가는 세 개의 메시지를 백성에게 대언한다.

1-2장: 경고, 3-5장: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 약속, 6-7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그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 〉

구약성경과 역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순종, 그러나 백성은 항상 타락하여 불순종한다.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은 목적: 주변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도록 하려고(창12;1-3).
이스라엘을 통해 여자의 씨 메시아가 온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난다(요4;22).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행함,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을 경멸하였다(빌3:14). 땅의 부르심이 아니다.

오늘 세 번째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고소하고(6:1-8) 그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신다
(6:9-7:7). 그리고 그 뒤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7:7-20).

미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백성의 회개를 촉구한다.

1. 많은 죄가 있으므로 주님을 신뢰하라(미6:1-8).

1. 하나님께서 백성의 문제 지적하심(1-5)

백성은 여전히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죄들을 숨기고 있다.

이사야의 대언(사1:5-6). 그런데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성전 뜰만 밟는다(12).

병이 있어서 X-ray. 큰 문제가 있다. 수술해야 한다. 그런데 의사보고 수술을 원치 않으니 X-ray
를 고쳐달라고 한다.

아무리 속여도 병을 치료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산과 강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으신다(1-2). 그리고 백성에게 변론하라고 하신다.

주님은 먼저 자신이 지금까지 행한 것을 보여 준다(3-5). 시106편에 자세히 있다.

모압 왕 발락, 발람을 불러 세 번이나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한다(민22-24).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런데 주님이 발람의 악한 시도를 막아 주신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인다(민25). 24,000명 죽음

5절의 시팀에서 길갈까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수3-4)

시팀 음행 장소, 길갈: 처음 진을 친 곳,

홍해를 가르듯 요르단을 가르심.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기억하는 것과 잊는 것

사람들의 특성: 쉽게 과거를 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 아주 안 좋은 일, 심각한 죄

그런데 좋지 않은 과거를 꼭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 좋지 않은 과거는 속히 잊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벗어난 사람들, 사주팔자에서 벗어난 사람들(골2:13-15)

과거의 어려운 일. 슬픈 일을 자꾸 꺼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책, 유언, 적어도 14번 기억하라고 한다. 자식들에게 알려야 한다.

무엇을, 내 불행한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만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보라. 구약을 그래서 공부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시106:7).

그 결과 마음이 강퍅하게 됨. 하나님을 대적함

하나님의 호소(6:3)

2. 백성의 대답(6-7)

백성은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해야 죄들을 제거할지 묻는다.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렸다.

예수님 앞에 나온 젊은 청년(막10:17-27)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통회하는 3000명의 성도들과 달랐다(행2:37).

6-7절은 마치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같다.

천주교의 보속 교리: 회개 없이 신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무언인가를 하는 행위

요6:28-20, 하나님의 일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진정한 믿음: 철저한 회개, 죄를 미워하는 것, 선행으로 안 됨을 깨닫는 것

3. 미가의 대답(8)

미가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히 전달한다.

핵심: 종교적 열심히 아니라 도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생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믿음의 행위, 구원받는 자들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다(시32:1-2).

긍휼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해야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면 먼저 그분 앞에 죄들을 고백하며 엎드려야 한다.

6:8은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이것은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대언자 미가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행하려면 1) 마음이 상한 채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 이것이 없이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눅18:9-14,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 행위, 교만함, 자기는 대접받기에 충분한 사람, 세리: 믿음, 겸손함, 자기는 대접받을 수 없는 사람

미가의 대언 대상인 유다 백성은 이 메시지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하신다는 알지 못함

2. 임박한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한다(6:9-7:7)

미가는 백성들에게 다시 들으라고 외친다(1, 9).

문제: 백성은 들을 귀가 없다(마13:9, 43 등).

1. 하나님께서 죄와 죄의 결과를 말씀하심(6:9-16)

예루살렘 백성에게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6:9). 이것이 없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잠1:7).

특별히 상인들 질책(10-12)

이를 통해 약자들을 착취함(암8:4-10), 모세의 율법 무시

부자들, 강자들은 저울을 속이고 뇌물을 줌, 폭력을 행사함(12)

그러나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

두 종류의 심판을 정하심(6:13-16). 1. 천천히 진행되는 파멸(3-15), 2. 바빌론 포로(16)

아직 아시리아 시대, 그러나 바빌론 포로를 말씀하심(4:10)

2. 미가 대언자의 슬픔(7:1-7)

대언자: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 마음으로 백성의 집을 느낌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미가: 경건한 사람이 없어서 통곡함(7:2)

악한 치리자들: 그물을 엮어 백성에게 던지는 사냥꾼(7:2)

찔레와 가시 같다(7:4).

일반 백성과 치리자들이 다 부패하였다(5-6).

사람들이 진리를 무시하면 그 사회는 곧 파멸한다(렘5:1). 아무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때에 백성은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불법 탄핵, 종북 주사파 정권, 7:2를 보라. 교인들이 회개해야 한다.

3.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해 주님을 신뢰하라(미7:7-20).

대언자는 이제 백성에게서 눈을 돌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7).

여기에는 여러 부류 사람들의 음성

8-10은 백성, 11-14는 대언자, 15는 주님, 16-20은 대언자

미가는 먼 훗날 즉 주님의 재림의 때를 내다본다.

1. 백성의 음성(8-10)

대언자는 백성의 남은 자를 대신해서 말한다.

원수의 말(10), {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남은 자들의 확신: 지금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곧 빛을 볼 것이며 원수들을 누르고 이길 것이다.

이것은 아시리아, 바빌론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음. 재림의 때

2. 대언자의 음성(11-14)

비록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하지만 최종적으로 재건될 것이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성전, 나라(사2:1-5; 겔40-48)

백성의 경계가 크게 확장될 것이다.

백성을 위한 기도(14)

3. 주님의 음성(15)

약속의 말씀, 또 다른 탈출(사11:11, 15-12:6)

4. 대언자의 음성(16-20

과거 이집트 탈출, 주변 백성들 듣고 놀람(수2:8-11), 이번에는 더 크게 놀람(16-17)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승리

이유: 주님의 성품(18)

미가 이름: 누가 주와 같은가?

주님이 하실 일(19-20): 이스라엘은 확실히 선다. 눅1:72-73, 31-33

5.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진리 편에서 서고 공의롭게 행하며 바르게 살아야 한다.